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장여옥¹

Yo Ok Cha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The subjects consisted of 180 fathers with children at ages between 4-7 years old from 2 preschools and 3 kindergartens located in Y city in Gyeonggi province. The analyses used for this study included the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athers' play participation was not differen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fathers' age, educational level, and job. Second, fathers' participation in functional play, role play, and constructive play wa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activator, reassurance, and cooperation among subscale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lso, fathers' participation in games was negatively related to reassurance among children and positively related to hypersensitivity among children. Third, fathers' participation in role play and functional play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self-monitoring and self-control. These findings suggest emphasizing fathers' play participation to improv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it can be helpful to underline fathers' education and to develop programs for fathers' play.

¹ 제1저자(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시간강사

(e-mai : yochang75@gmail.com)

Key words Fathers' Play Participati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ren's Self-regulation.

I. 서론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였으며 어머니는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핵가족 및 이혼가정 등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기회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가정 내의 부부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권희경, 2009). 특히,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했던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아버지의 공동참여와 역할분담이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들(Lamb, 2010; Parke, 1996)에 따르면 어머니와 동일하게 아버지도 유대감 형성을 통해 자녀들을 능동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며, 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비롯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영유아의 차이, 올바른 양육태도 및 기술, 자녀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이 필요한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이와 같은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놀이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McBride & Mills, 1993).

부모는 자녀와 놀이를 하는 동안 놀이를 계획하고 놀이수준을 높여주며 놀이를 활발히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자녀는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부모를 통해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친밀하게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특히, 아버지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놀이요소를 수반하며(Roggman, 2004),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직접적으로 유아의 언어능력과 문해기술, 인지적 능력, 사회적 유능성,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놀이방식은 차이가 존재하며 유아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Hughes, 1995; Pruett, 2000; Roggman, 2004). 어머니는 언어적 및 교육적 놀이, 구성놀이 형태를 취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신체적 및 활동적 놀이와 자극적인 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은혜, 2008; 윤상인, 2011; McBride & Mills, 1993; Parke, 1996). John, Halliburton 그리고 Humphrey(2013)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는 놀이를 통해 구조화하고 자녀를 가르치며 공감형성을 위한 대화를 일삼는 반면에 아버지는 신체놀이를 통해 또래처럼 행동하면서 자녀에게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아는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어머니와의 놀이보다는 예측하기 어렵고 활동적인 아버지와의 놀이시간을 선호한다(이영환, 2001; Pruett, 2000). 또한 아버지는 딸보다는 아들(Lindsey & Mize, 2001)과 취학아동보다는 미취학 아동(Yeung, Sandberg, Davis-Kean, & Hofferth, 2001)과 신체놀이를 더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insburg, 2007; Russell & Saebel, 1997; Ward, 1996). 사회적 유능성이란 개인이 성장 및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유능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이런 기술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Sarason, 1981).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성을 잘 형성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의 가치관과 성격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성, 문제행동,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은혜, 이미리, 임연진, 1997; Parker & Asher, 1987). 아버지의 참여가 자녀양육에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늘고 있다. 놀이를 통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놀이경험을 제공하며, 자녀는 부모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유능성을 배우게 된다(임정란, 2002). 특히,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증가하며(송은혜, 2008; 임정란, 2002), 아버지와 신체적 놀이를 많이 경험한

유아일수록 또래관계가 원활하고 인기도 높았다(MacDonald & Parke, 1984). 아버지의 기능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는 유아의 유능성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역할놀이는 유아의 지도성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한영숙, 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도를 비교한 고영실과 부정민(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유아들은 성장하면서 가족구성원, 또래, 다른 성인들을 통해 사회화되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을 배우게 된다. 자기조절능력은 사회규범 및 규칙과 타인의 요구에 맞게 개인의 행동과 정서를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이정란, 2003; DeGangi, 2000; Vohs & Baumeister, 2004). 자기조절능력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처해진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외현적인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며 외부 감시자가 없어도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는 행동을 말한다(Olson & Kashiwagi, 2000). 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 주의집중력, 친사회적행동, 규칙 지키기 등에 영향을 준다(Cole, Zahn-Waxler, & Smith, 1994). 자기조절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를 이해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반면에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주의집중력이 약하고 과잉행동 및 공격적성을 보이며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높다(Kochanska, Akasn, & Koenig, 1995; 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들에는 부모역할 및 놀이참여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육태도 등이 있다(권수정, 2005; 김희태, 이임순, 2009). 특히,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류희정, 이진희, 2013; 최혜순, 김찬숙, 20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신체놀이와 역할놀이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다(최혜순, 김찬숙, 2011; 홍혜미, 2010). 그리고 아버지의 신체놀이는 유아의 공격적인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Flanders, Leo, Paquette, Pihl, & Séguin, 2009; Pleck, 2007) 아버지의 구성놀이, 교수놀이, 역할놀이는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쳤다(류희정, 이진희, 2013).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홍혜미, 2010)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원희영, 1997; Craig, 2006; Tamis-LeMonda et al., 2004) 자녀와의 놀이참여도가 높았다. 그러나 수입이 적은 아버지일수록 생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와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한영숙, 2006).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으므로(고영실, 부정민, 2009; 류희정, 이진희, 2013),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자녀의 놀이참여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부모와 유아의 놀이는 주로 어머니의 놀이형태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류희정, 이진희, 2013; 임정란, 2002; Roggman, 2004; Tamis-LeMonda et al., 2004). 하지만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자녀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놀이참여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아의 놀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기존에 부모 모두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하였다(고영실, 부정민, 2009; 류희정, 이진희, 2013).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을 부모가 아닌 유아기관의 교사가 측정하도록 하여(고영실, 부정민, 2009; 류희정, 이진희, 2013), 아버지가 지각하고 있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을 아버지가 평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가정이나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아의 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협조성으로 나누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자기점검과 자기통제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를 위한 자녀교육 및 놀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거주하는 4-7세의 자녀를 둔 아버지 1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101명(56.1%)과 여아 79명(43.9%)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은 6세-7세 미만이 97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5세-6세 미만 55명(30.6%), 4세-5세 미만 28명(15.6%)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3.4($SD = 3.53$)세이며 이중에서 41세 이상이 104명(57.8%)으로 가장 많았으며, 36세-40세 67명(37.2%), 31세-35세 9명(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4년제 대졸이 110명(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 이상 57명(31.7%), 전문대졸 11명(6.1%), 고졸 2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80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36명(20.0%), 자영업 25명(13.9%), 기술직 15명(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500-599만원이 44명(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900만원 이상 34명(18.9%), 400-499만원 33명(18.3%), 600-699만원 24명(13.3%), 700-799만원 21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80)

변인	범위	빈도	비율(%)
유아 성별	남아	101	56.1
	여아	79	43.9
유아 연령	4세-5세 미만	28	15.6
	5세-6세 미만	55	30.6
	6세-7세 미만	97	53.9
아버지 연령	31세-35세	9	5.0
	36세-40세	67	37.2
	41세 이상	104	57.8
아버지 학력	고졸	2	1.1
	전문대졸	11	6.1
	4년제 대졸	110	61.1
	대학원졸 이상	57	31.7
아버지 직업	전문직	36	20.0
	자영업	25	13.9
	사무직	80	44.4
	공무원	8	4.4
	기술직	15	8.3
	판매/서비스직	7	3.9
	기타	9	5.0
가정의 월소득	300-399만원	15	8.3
	400-499만원	33	18.3
	500-599만원	44	24.4
	600-699만원	24	13.3
	700-799만원	21	11.7
	800-899만원	9	5.0
	900만원 이상	34	18.9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Stevenson, Leavitt, Thompson 그리고 Roach(1988)의 놀이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정도 단계를 활용하여 원희영(1997)이 제작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구성놀이(3문항), 신체놀이(4문항), 교수놀이(4문항), 게임(3문항), 역할놀이(4문항), 기능놀이(4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참여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성놀이는 쌓기와 끼우기 등으로 물건을 조작하여 독특한 것을 만드는 놀이이다. 신체놀이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나 격렬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는 놀이이다. 교수놀이는 사물의 이름, 색깔, 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 다양한 책을 보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놀이이다. 게임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며 승리를 위해 정해진 규칙을 따라하는 놀이이다. 역할놀이는 사물과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상상적 놀이이다. 기능놀이는 물체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발적이며 의도적으로 물체를 조직하는 놀이이다. 검사문항으로 구성놀이는 ‘자녀가 퍼즐 맞추기(종이, 나무 등 여러 가지 퍼즐) 놀이를 할 때’, 신체놀이는 ‘자녀가 달리기나 잡기 놀이를 할 때’, 교수놀이는 ‘자녀가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으려 할 때’, 게임은 ‘자녀가 숨바꼭질과 같은 숨기 놀이를 할 때’, 역할놀이는 ‘자녀가 가게 놀이를 하려고 할 때’, 기능놀이는 ‘자녀가 비눗방울 놀이나 빨대불기 놀이를 할 때’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비참여(1점)’에서 ‘적극적 참여(4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하위영역 신뢰도는 구성놀이 .84, 신체놀이 .71, 교수놀이 .82, 게임 .71, 역할놀이 .95, 기능놀이 .75이었다.

2)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ase, Clark 그리고 Crase(1979)가 개발한 ISCS(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Age)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비협조성, 협조성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협조성과 협조성을 통합하여 4개의 하위요인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자녀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활동성은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언어적 지시 이해 및 가족이나 또래와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과민성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과민한 행동을 말한다. 안정성은 자신감이 있고 낮은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는 행동을 말한다. 협조성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동이다. 검사문항으로 사회적 활동성은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기가 먼저 놀이를 하자고 제안 한다’, 과민성은 ‘다른 아이들이 놀리면 어쩔 줄 몰라 한다’, 안정성은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서 논다’, 협조성은 ‘어른이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그렇다고 생각한다’의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의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71이며, 하위영역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사회적 활동성 .75, 과민성 .74, 안정성 .86, 협조성 .66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이정란(200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연구대상인 자녀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정란(2003)의 연구 중에서 요인계수 .40이하인 2문항을 제거하고 2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점검(13문항)과 자기통제(16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기점검은 자기평가와 자기결정 과정을 통해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전략을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는 내면화된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자신의 기질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성격적 특성을 의미한다.

검사 문항을 살펴보면 자기점검은 ‘우리 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자기통제는 ‘우리 아이는 놀이를 하다가 다른 친구가 장난감을 빼앗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양보하는 편이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부터 ‘아주 그렇다’의 5점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78이며, 하위영역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자기점검 .85, 자기통제 .65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 도구의 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아버지들은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측정도구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2기관과 유치원 3기관을 임의표집 하였으며, 임의표집된 기관의 유아와 그들의 아버지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담임교사가 유아의 가정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아버지가 응답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응답한 설문지는 유아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설문지를 분실하거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회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완전한 응답이 이루어진 설문지를 제외하고 18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변인(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t 검정은 표본수를 고려하여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차이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t*검정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은 유아의 놀이참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차이 (N = 180)

변인	범위	놀이참여도		
		N	M(SD)	t
아버지 연령	40세 미만	76	3.19(.47)	-.74
	40세 이상	104	3.24(.51)	-.75
아버지 학력	전문대졸이하	13	3.21(.52)	-.05
	대졸이상	167	3.22(.49)	-.05
아버지 직업	사무직	124	3.24(.48)	.79
	비사무직	56	3.17(.51)	.77

* 표본 수에 근거하여 집단구분

2.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차한계는 .479~.718로 0.1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값은 1.393~2.087로 10미만으로 나타나(황해익, 송연숙, 최혜진, 손원경, 2008),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10.6%($R^2 = .10$, $F = 3.43$, $p < .01$)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구성놀이(구성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06$, $p < .05$)). 즉 아버지의 구성놀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사회적 활동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과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7.8% ($R^2 = .07, F = 2.44, p < .05$)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게임 참여도가 유아의 과민성 ($t = 3.13, p < .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아버지의 기능놀이가 유아의 과민성 ($t = -2.48, p < .05$)에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기능놀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과민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아버지의 게임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과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7.0% ($R^2 = .07, F = 2.16, p < .05$)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게임 참여도가 유아의 안정성 ($t = -2.35, p < .05$)에 부적적으로, 아버지의 기능놀이가 유아의 안정성 ($t = 2.51, p < .05$)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게임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아버지의 기능놀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협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7.0% ($R^2 = .07, F = 2.17, p < .05$)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놀이가 유아의 협조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21, p < .05$). 즉 아버지의 역할놀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협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7.0% ($R^2 = .07, F = 2.45, p < .05$)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게임 ($t = 2.72, p < .05$)과 기능놀이 ($t = 2.36, p < .05$)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변수: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협조성		전체	
	B	t	B	t	B	t	B	t	B	t
상수	2.80	11.22***	3.31	10.05***	3.15	6.25***	3.32	12.43***	2.42	12.50***
구성놀이	.11	2.06*	.06	.90	.04	.35	-.01	-.17	.05	1.20
신체놀이	-.01	-.20	-.04	-.45	-.18	-1.29	.03	.49	-.03	-.64
교수놀이	.03	.54	-.16	-1.80	.23	1.62	.03	.39	.06	1.23
게임	.04	.62	.29	3.13**	-.34	-2.35*	.04	.63	.14	2.72*
역할놀이	.06	1.44	.00	.06	-.07	-.78	.10	2.21*	.03	.95
기능놀이	-.00	-.03	-.27	-2.48*	.41	2.51*	-.04	-.46	.17	2.36*
R2	.10		.07		.07		.07		.07	
Adjusted R2	.07		.04		.03		.03		.04	
F	3.43**		2.44*		2.16*		2.17*		2.45*	

* $p < .05$, ** $p < .01$, *** $p < .001$.

3.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479~.718로 0.1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값은 1.393~2.072로 10미만으로 나타나(황해익 등, 2008),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점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8.6%($R^2 = .08$, $F = 2.71$, $p < .05$)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놀이가 유아의 자기점검($t = 2.97$, $p < .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역할놀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점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9.6%($R^2 = .09$, $F = 3.04$, $p < .01$)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구성놀이와 역할놀이가 유아의 자기통제($t = 1.99$, $p < .05$; $t = 2.01$, $p < .05$)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구성놀이와 역할놀이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통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델은 적합하였고 8.0%($R^2 = .08$, $F = 2.89$, $p < .05$)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하위요인 중에서 역할놀이($t = 2.53$, $p < .05$)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기조절능력					
	자기점검		자기통제		전체	
	B	t	B	t	B	t
상수	3.25	10.23***	2.66	12.01***	3.06	16.39***
구성놀이	-.00	-.04	.09	1.99*	-.00	-.16
신체놀이	-.00	-.06	-.07	-1.11	-.01	-.25
교수놀이	.02	.24	-.10	-1.67	-.02	-.53
게임	.07	.86	.08	1.24	.05	1.08
역할놀이	.17	2.97**	.08	2.01*	.10	2.53*
기능놀이	-.10	-.99	.04	.61	.00	.22
R2	.08		.09		.08	
Adjusted R2	.05		.06		.06	
F	2.71*		3.04**		2.89*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가 4-7세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은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임정란, 2002; Ivrendi & Isikoglu, 2010)는 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이다. 반면에 학력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놀이 참여시간의 기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원희영, 1997; Craig, 2006; Tamis-LeMonda et al., 2004)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 수입이 적은 아버지일수록 놀이가 자녀의 인지적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놀이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오락에 불과하다는 관점(Craig, 2006; Ivrendi & Isikoglu, 2010)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양육과 놀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철학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더불어 자녀양육 및 놀이 가치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고영실, 부정민, 2009; 송은혜, 2008; 한명숙, 2007)과 동일하다. 아버지의 역할놀이는 유아의 협조성을 높이고, 기능놀이는 유아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에 과민성을 낮추며 그리고 구성놀이는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역할놀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재현해 봄으로써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런 경험들은 유아들이 친구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며 놀거나 친구들을 도와주는 등의 협조성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한명숙, 2007), 아버지의 기능놀이 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송은혜, 2008; 한명숙, 2007)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역할놀이를 통해 자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녀는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유아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능놀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놀이방법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며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알아가게 되고 정서적 문제나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안정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구성놀이를 통해 유아는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과 원만하고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상호작용 기술을 배우게 된다.

반면에 선행연구결과들(고영실, 부정민, 2009; 한명숙, 2006)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게임이 유아의 과민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임을 통

해 유아는 규칙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알아가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게임에 몰두하게 될 경우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자극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과민한 행동이 유아가 낮은 사람이나 환경에 부딪혔을 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상대방과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와 게임을 할 때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규칙을 정하고, 자녀가 그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수놀이는 유아의 안정성(임정란, 2002)과 사회적 활동성(최진주, 2004; 한영숙, 2006)에, 아버지의 신체놀이는 유아의 유능성(한영숙, 2006)에 정적인 상관관이 있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수놀이와 신체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신체놀이는 아들 또는 미취학 아동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Lindsey & Mize, 2001; Yeung et al., 2001)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유형별 아버지의 놀이 참여도가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놀이 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에서도 자기점검에 그리고 아버지의 구성놀이와 역할놀이 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중에서도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에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구성놀이와 역할놀이가 남녀유아의 자기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류희정, 이진희, 2013)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유아가 아버지와 함께 물건을 조작하며 다양한 것을 만드는 구성놀이를 해봄으로써 물건을 조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잘못된 조작활동으로 인한 실수나 좌절을 통해 적절한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여 올바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버지와 함께하는 역할놀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역할과 상황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경험은 유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이 수행해야 할 태도 및 행동양식을 알게 되고 스스로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즉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자신의 적절한 행동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에 아버지의 기능놀이 참여도가 높은 경우에 유아도 자기조절능력이 높다(류희정, 이진희, 2013; 최혜순, 김찬숙, 2011)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기능놀이 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가 기능놀이를 통해서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놀이를 통해 상대방과 협력하고 협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며 이런 결과는 유아가 또래와 놀이를 할 때 긍정적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최혜순, 김찬숙, 2011)는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 자기주장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경기도에 위치한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을 확장하고 표본수도 늘려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도구의 하위 척도인 자기통제의 신뢰도가 .65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란(2003)이 개발하고 요인 분석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놀이참여도의 설명력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서 아버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회귀식에 투입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놀이참여도,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자기보고식 질문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 또는 제3자가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자녀의 사회적 및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유아의 사회성 향상과 자신의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버지 중심의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발달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버지의 놀이 중에서도 쌓기와 끼우기 등의 구성놀이, 소꿉놀이, 병원놀이, 가게 놀이처럼 사물이나 자신의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하는 역할놀이, 목적물 맞히기나 비눗방울 놀이의 기능놀이를 중점으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수정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희경 (2009). 아버지 양육참여도, 어머니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79-98.
- 고영실, 부정민 (2009).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4(1), 95-112.
- 김희태, 이임순 (2009). 가족 상호작용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21.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희영 (1997).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인 (2011). 맞벌이 부모가 지각한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도와 만 2세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 놀이와 제 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 (2001).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발달적 결과: 단기종단적 연구. **한국 아동학회지**, 22(2), 65-76.
- 이은혜, 이미리, 임연진 (1997).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 난이도 지각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17(2), 119-137.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란 (2002).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주 (2004).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아버지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능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순, 김찬숙 (2011).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 및 시간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17-133.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한명숙 (2007). 아버지의 놀이 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미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및 놀이유형별 놀이참여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해익, 송연숙, 최혜진, 손원경 (2008). **영유아-아동연구에서의 SPSS 자료 분석**. 서울: 창지사.
- Cabrera, N.,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 (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835-846.
- Craig, L. (2006). Parental education, time in paid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diary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4), 553-575.
- DeGangi, G. (2000). *Pediatric disorders of regulation in affect and behavior: A therapist's guide to assessment and treatment*. CA: Academic Press.
- Flanders, J. L., Leo, V., Paquette, D., Pihl, R. O., & Séguin, J. R. (2009). Rough-and-tumble play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An observational study of father-child play dyads. *Aggressive*

- Behavior*, 35(4), 285-295.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 Hughes, F. P. (1995).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Boston: Allyn and Bacon.
- Ivrendi, A., & Isikoglu, N. (2010). A Turkish view o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pla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6), 519-527.
- John, A., Halliburton, A., & Humphrey, J. (2013). Child-mother and child-father play interaction patterns with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83-497.
- Kochanska, G., Aksan, N., Koenig, A. L.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conscience: Committed compliance and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6), 1752-1769.
- Lamb, M. E. (2010).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5th ed.). Hoboken, NJ: Wiley.
- Lindsey, E. W., & Mize, J. (2001). Contextual differences in parent-child play: Implications for children's gender role development. *Sex Roles*, 44(3-4), 155-176.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 McBride, B. A., & Mills, G. (1993). A comparison of mother and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age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4), 457-477.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I.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4907), 933-937.
- Olson, S. L., & Kashiwagi, K. (2000). Teacher ratings of self-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A Japanese/U.S. comparis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609-617.
- Parke, R. D. (1996). *Fatherhood*.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5), 1335-1349.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School-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Pleck, J. H. (2007). Why could father involvement benefit children? Theoretical perspectives.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1(4), 196-202.
- Pruett, K. D. (2000). *Father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Y: Free Press.
- Roggman, L. A. (2004). Do fathers just want to have fun? Commentary on theorizing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Human Development*, 47(4), 228-236.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 Sarason, B. R. (1981). The dimension of social competence: Contributions from a variety of research areas. In J. D. Wine & M. D. Smye (Eds.), *Social competence*(pp. 100-122). NY: Guilford Press.
- Stevenson, M. B., Leavitt, L. A., Thompson, R. H., & Roach, M. A. (1988). A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1-108.
- Tamis-LeMonda, C. S., Shannon, J. D., Cabrera, N. J., & Lamb, M. E.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 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 Vohs, K. D., & Baumeister, R. F. (2004). Understanding self-regulation.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pp. 1-9). NY: Guilford Press.
- Ward, C. D. (1996). Adult intervention: Appropriate strategies for enriching the quality of children's play. *Young Children, 5*(3), 20-25.
-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 (2001). Children'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논문투고: 15.12.14
수정원고접수: 16.02.11
최종게재결정: 16.04.07